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 거래일대비 3.40원 하락한 1,183.50원에 마감

14일 환율은 위험선호 회복 분위기에 전 거래일 대비 3.40원 하락한 1,183.50원에 마감하였다.

이날 환율은 NDF 시장의 달러-원 1개월물 환율을 반영하여 전 거래일 대비 0.10원 오른 1,187.00원에 개장하였다. 개장 이후 환율은 코스피 상승세와 외국인 순매수로 위험선호 회복 분위기에 하락하였다. 오후에는 역외 달러-위안(CNH)도 하락세를 나타내어 달러-원 환율 하락을 부추겼으며 1,183원~1,184원대에서 횡보하다가 1,183.50원에 마감하였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 무렵의 엔-원 재정환율은 1,115.66원 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187.00	1187.50	1183.10	1183.50	1184.2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117.27	1121.27	1114.57	1119.89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405.91	1406.92	1401.38	1403.98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13	-0.72	-2.01	-4.45
결제환율(수입)	0.2	0.31	0.25	-0.21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美증시 반등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 회복에... 1,180원대 초반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00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183.50원) 대비 1.50원 하락한 1,182.00원에서 최종 호가 되었다.

금일 환율은 간밤 미 증시가 반등하면서 하락이 예상된다. 반도체 제조사 엔비디아가 일본 소프트뱅크로부터 반도체 설계회사인 ARM을 사들이기로 하고 미국 기술기업 오라클은 중국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인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와 기술제휴를 맺는데 합

의하면서 M&A 호재로 위험선호는 회복되었다. 달러 인덱스는 이번 주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Fed)가 초완화정책 통화정책 기조를 강조할 것으로 기대되어 하락하였다.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의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 재개, 미국 화이자의 백신 제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 둔화는 환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할 예정이다. 다만, 15일(미국시간)부터 중국 화웨이에 대한 미국의 수출규제가 시작되는 만큼 미중 갈등이 격화될 수 있어 하락폭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179.67 ~ 1185.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1427.04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1.50원 ↓
	■ 美 다우지수 : 27993.33, +327.69p(+1.18%)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51.05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11868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